

다산포럼

생각하는 지도자를 세워야 나라가 산다



김정남 언론인

1970년대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 수도 이전 문제가 정권 차원에서 제기되었을 때, 육중의 김대중은 수도 이전이나 분할은 안 된다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일만은 막아야 한다고 간곡하게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그로부터 30년 가까이 지나 누구는 대통령선거에서 재미 좀 보려고 수도 이전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누구는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행정복합도시라는 기형의 세종시를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교단에서



김진구 우산중학교 교감

산 색깔이 조금은 멀게 느껴지고, 매미 소리가 가라앉게 들리면 여름의 무더위도 자빠지는 데 금년에는 그렇지 않았다. 자연의 이치를 관찰하여 절기(節氣)를 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습관이 경험적 교훈으로 축적되어 숙답 형식으로 전해 오는데 이제는 많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기고



이민원 광주대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장

광주일보 보도(7월5일자 6면)를 보니 한국전력공사가 300억원의 개발이익을 남기기 위해 남광주변전소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모양이다. 이 부지는 전원공급시설로 묶여있어 여기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남구청의 도시계획시설(변전소) 폐지 절차가 남아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하산이 조선·해운 산업을 송두리째 들어 먹고 해외로까지 나간 낙하산이 나라 망신을 시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전히 곳곳에 낙하산이 내려앉고 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는데, 이렇고도 과연 나라가 제대로 서 있을 수나 있을지 걱정이다.

흔히 보수는 부패, 진보는 무능이 문제라고 말한다. 무능한 것보다는 차라리 부패한 것이 낫다고 하여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일도 있었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자기 비하와 비관의 풍조를 한탄했다. 그러나 누가 이 나라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헬조선’의 ‘흙수저’로 자조하게 만들었는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정당만큼 맡겨줄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 나라 이 공동체에 어디로 갈 것인가를 놓고 국민 앞에서의 정의로운 토론과 경쟁을 통해 국민후보를 내세우는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하고 싶다.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안으로 정부의 무능으로 인하여 경제와 안보 그 모두가 불안하기 짝이 없고, 밖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천하대안이 벌어지고 있다.

시대의 징표를 올바르게 읽고 시대정신을 구현해 낼 지도자가 이제는 나와야 한다. 오늘 이 나라, 이 공동체에 가장 긴요한 시대정신은 양극화의 해소를 비롯, 공동체의 복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정당만큼 맡겨줄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 나라 이 공동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놓고 국민 앞에서의 정의로운 토론과 경쟁을 통해 국민후보를 내세우는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하고 싶다.

‘생얼’은 안 돼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다. “아가, 봄이 되니 마스크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마스크를 썼니?”

“.....” “아니면 감기가 걸려서냐, 미세먼지 때문이나?” “.....”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교실로 들어갔다. 등굣길에 괜히 학생을 우울하게 했나 귀찮게 했다.

“아침에 늦어서 비비크림과 립틴트를 바르지 못해 생얼로 등교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생얼을 다른 학생이나 선생님께 보여주기가 싫기 때문에 마스크를 썼다.”

“아이 중2 교실에 들어가갈 때면 본인의 중2년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고, 고3 교

실을 들어가면 자신의 고교 3학년 때를 돌아보면서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수 있던 말시.’

“아이 중2 교실에 들어가갈 때면 본인의 중2년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고, 고3 교실은 화장품이고 립밤은 트기 쉬운 입술에 영양과 보습력을 강화시켜주는 제 품이기에 화장품이 아니더라는 교육현장의 논란도 있었지만 잡티를 가려주고 얼굴을 희게 보이는 비비크림이나 입술에 바르는 제품 사용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실을 들어가면 자신의 고교 3학년 때를 돌아보면서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수 있던 말시.’

“아이 중2 교실에 들어가갈 때면 본인의 중2년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고, 고3 교실은 화장품이고 립밤은 트기 쉬운 입술에 영양과 보습력을 강화시켜주는 제 품이기에 화장품이 아니더라는 교육현장의 논란도 있었지만 잡티를 가려주고 얼굴을 희게 보이는 비비크림이나 입술에 바르는 제품 사용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 중2 교실에 들어가갈 때면 본인의 중2년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고, 고3 교실은 화장품이고 립밤은 트기 쉬운 입술에 영양과 보습력을 강화시켜주는 제 품이기에 화장품이 아니더라는 교육현장의 논란도 있었지만 잡티를 가려주고 얼굴을 희게 보이는 비비크림이나 입술에 바르는 제품 사용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남광주변전소 부지 아파트 건설 재고해야

장은 그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변전소가 들어선 1960년대 이후 받아 온 고압전류로 인한 불안감, 소음 등의 고통을 이제 헤아려 달라는 호소다.

한전은 공기업이다. 공기업의 사명은 재정건전화가 아니다. 공기업의 사업 대상은 적자가 심하여 사기업들은 외면하는데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 사업이다.

한전은 공기업이다. 공기업의 사명은 재정건전화가 아니다. 공기업의 사업 대상은 적자가 심하여 사기업들은 외면하는데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 사업이다.

라보며 이 판국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그 아이디어의 천박함과 국가적 사망감 결핍의 끝을 보는 느낌이다.

간 3만1950㎡의 부지, 거의 만평에 이르는 거대한 변전소 안에 거주하면서 주민들이 느꼈을 불편함은 너무나 선명하다. 천둥, 벼락이라도 치는 날에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는가.

한여름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시달리고 보니, 도시 안에 공원이 부족한 이 세삼 크게 다가온다. 도시가 이렇게 들끓는 데는 열섬효과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장은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원래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두 주장 모두 인정될 수 있다. 한전 측의 아파트 건설 주장은 재정확보 때문이다.

한전 측은 재정확보 역시 공기업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도 시시때때로 친환경도시와 생태도시를 외치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행태는 아파트 건설이요 난개발이다.

社說

단순한 언론인 비리인가 우병우 감싸기인가

대우조선해양이 제공한 ‘초호화 외유’ 의혹을 받고 있는 송희영(62) 조선일보 주필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여제 회사에 의해 주필 보직에서 해임됐다.

우리는 송 주필이 기업으로부터 과도한 접대를 받았다면 이는 언론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점을 아르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농어촌버스 광주 노선 갈등 대화로 해결하라

요즘 광주 시내버스들이 안내문을 내건 채 운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안내문에는 광주 노선버스 수적이 매년 2억 4000만 원가량 감소해 시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한다.

달리는 시내버스에 일종의 플래카드가 내걸린 것은 광주교통 999번의 광주 노선 변경에 따른 갈등 때문이다.

나주시는 이달 초 혁신도시(나주)~백운동~광주역을 운행하던 노선을 혁신도시~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전남대 후문으로 변경 인가를 받았다.

이제 광주 시내버스 운행사업조합은 ‘나주시의 운행구간 변경 인가를 취소하고 발원 판결 전 노선 연장도 중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지극한 대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절에 언론사 주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지 청와대의 의도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 정권에 우호적이었던 조선일보의 경우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에 대해서만큼은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해 왔기 때문이다.

언론인을 비롯해서 그 누가 됐든 비리의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의뢰해 상당한 처분을 받게 하면 그만이지 이를 빌미로 우 수석 비리 수사에 몰타기를 하려 해서 안 된다.

조합을 거드는 모양새다.

조합 등은 농어촌버스 운행 구간이 늘면 광주 시내버스 수적이 매년 2억 4000만 원가량 감소해 시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혁신도시를 살려 상생하자고 외쳐 놓고선 버스 노선 문제 하나 해결 못해 발원까지 가게 된 상황에 대해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광주시와 나주시, 버스 사업자들은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령 광주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의 손익, 예상 지역 수해를 면밀히 분석해 상계하는 방안 등을 찾아 문사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도

無等鼓

“그러므로 집이 이에 결연히 내성(內省)하고 확연히 스스로 결단을 내려 이에 한국의 통치권을 종전부터 친근하게 믿고 의지하던 이웃 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하여 밖으로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 팔역(八域)의 민생을 보전하게 하니 그때대 대소신민들은 국세(國勢)와 시의(時宜)를 깊이 살펴서 번거롭게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각각 그 직업에 안주하여 일본 제국의 문명한 새 정치에 복종하여 행복을 함께 받으라.”

경술국치일

경술년(1910년) 8월 29일은 조선왕조 실록에 어떻게 기록 되었을까? 이날 순종은 조선의 통치권을 일본에 넘기면서 무기력하게도 ‘복종’할 것을 지시한다.

육을 당한 당시 인정은 심히 흉흉하다. 원로대신들 중에 자살하는 자들과 내외 관인(官人) 중에도 자살하는 자가 다(多) : 다수를 차지함)하고, 교육계에는 배일사상이 극도에 달하고 오직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 팔역(八域)의 민생을 보전하게 하니 그때대 대소신민들은 국세(國勢)와 시의(時宜)를 깊이 살펴서 번거롭게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각각 그 직업에 안주하여 일본 제국의 문명한 새 정치에 복종하여 행복을 함께 받으라.”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후 다시 나라를 되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지사들이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자원이 수탈됐는가. 더욱이 해방 후에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이로써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두를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어제 29일은 경술국치(國恥) 106년째 되는 날이었다. 광복절과 같은 달에 있지만 이날은 잘 알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이들이 많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한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제부 220-0663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경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7-9500)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1)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